

“고객수익 우선” 국민銀, 퇴직연금 손실땀 수수료 면제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

업계 최초 연금 수령 수수료 면제
가입부터 수령까지 생애주기연계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申 申 DB·DC 적립금 수수료율 ↓



하인 KB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연금 수령 고객에게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으며,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수수료부터 수익률, 운용 조직 전반에 걸쳐 퇴직연금을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퇴직연금 최초 가입부터 적립 및 운용, 퇴직, 연금수령 단계까지 고객의 생애주기와 연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KB국민은행은 은퇴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이번 면제 혜택은 KB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제공한다. 또 KB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로 소급해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한다.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KB국민은행

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는다. 또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제도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DB형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인하해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 최우선 과제는 고객 수익률 제고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최우선 과

제를 고객 수익률로 정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우선 기존 마케팅 중심의 조직구조에서 ‘고객·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5월에는 자산관리에 특화된 자산관리(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으며, 수익률 관리 전담 조직(Agile)에서 효율적인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저금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객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지난 해 문을 열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는 규모와 업무 범위를 확대해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각 영업점에 배치된 연금전문가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DC, IRP 가입 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 1로 연결 후 밀착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

상품현황 등 정기적 발송자료 또한 고객 입장에서 연금자산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하고 알기 쉬운 정보 중심으로 시각화해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디러닝 기술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연금 케이봇 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핀테크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AI 기반의 ‘생애주기 연금자산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은퇴 후 국민 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인 ‘소득 크레바스’를 겪는 고객들을 위해서도 특화 상품을 제공한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총 자산 6.6조로 급성장 韓·日·몽골 사업 다각화



3개 계열사 둔 일본 금융사
은행·非은행·채권회수 운영
韓시장선 은행업 중심 사업
중금리 상품 이자수익 노려

용사업에서 수익을 올렸다. 비금융 사업부문에서 회사는 올해 일본에서 광고기획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올퓨즈(allfuz)와 영상제작업무를 영위하는 풀인라지(foolenlarge)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고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적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신규 연결에 따른 매출이 증가했으나 한국의 저축은행에서 중금리상품 위주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평균대출금리가 하락해 이자수익이 줄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은행업대출금이 감소하면서 이자수익의 또한 줄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반면 한국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에 힘입어 이자비용은 증가했다.

은행업에서는 올해 그룹사가 캄보디아에 공식적으로 진출해 영업을 개시했다.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ANZ 로얄은행을 인수하고 상호를 ‘J트러스트 로얄 은행’으로 교체했다. ANZ 로얄 은행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주요 도시에 14개 지점을 운영하며 현지 상위 기업과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 J트러스트그룹은 일본에서 보증사업, 채권회수사업에 주력하고 한국과 몽골에서는 중금리상품을 위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J트러스트그룹은 JT캐피탈, JT저축은행, JT진애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일본 금융사다. 은행과 비은행, 채권회수회사 등 3부문을 핵심으로 운영하는 금융사로 일본에서는 신용보증업무를, 몽골에서는 할부사업을,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은행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는 2012년 JT진애저축은행을 출범하면서 진출했다. 이어 2015년에 JT저축은행, JT캐피탈까지 국내에서 자리를 잡았다.

J트러스트그룹의 IR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자산이 약 6240억엔(6조6049억원) 수준이다. 지난 2008년 121억엔(1280억원)에서 급성장한 규모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J트러스트의 연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182억엔(약 1926억원), 영업이익 4억엔(42억), 세전이익 1억엔(1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J트러스트는 전년 동기 보다 한국, 몽골, 동남아시아의 금융사업부문에서 이익이 소폭 줄었고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 비금

신한카드, 해외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오픈

카자흐스탄법인 도입 시작으로
금융소의 계층에 순차 적용 확대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 법인인 신한파이낸스에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대안신용평가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인 크레파스와 손잡고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CB(Credit Bureau·신용평가)가 성숙치 못한 신흥 시장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안평가 솔루션의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대안신용평가란 금융거래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가 불충분한 환경에서 모바일·인성평가·거래정보·웹로그 등 비금융 데이터와 디지털 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새로운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신용평가 기법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지정대리인으로 선발된 개발업체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오픈한 대안평가 시스템은 신한

파이낸스가 개발한 대고객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신한카드는 고객의 모바일 기기 안에 담긴 캘린더 사용여부·휴대폰 사양·블루투스 연결 이력·SMS 송수신 횟수 등 다양한 패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축적된 정보를 현지 상황에 맞는 모형으로 재개발하고 검증하면서 정확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안평가 시스템은 CB정보와 심사 시스템의 발전 수준이 낮아 신용평가 및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글로벌 해외법인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신한카드 측은 이번 테스트를 거쳐 향후에는 소액대출, 가전할부금융 등 실시간 평가가 필수적인 상품의 심사에도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상품 다각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우리은행, 어려운 은행용어 개선 앞장

이해하기 쉬운 은행용어 사용 캠페인
한달 간 30개 개선용어 사용 등 실시

우리은행은 ‘더 친숙한 고객동행’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 중심의 용어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하는 ‘고객중심! 이해하기 쉬운 은행용어 사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참여형 대직원 테마제안을 지난 10월에 실시했으며, 직원들이 제안한 용어를 주요 업무

별로 분류하고 고객응대 사용빈도와 호과성에 따라 최종 30개 개선용어를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날인’을 ‘도장을 찍다’로, ‘내점’을 ‘방문’으로, ‘차주’를 ‘대출 신청하신 분’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30개 개선용어 사용 캠페인’을 11월 한달간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쉬운 용어 사용 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용어를 선정하는 ‘써보니 좋아요(♥Like)’ 이벤트를 동시에 실시한다.

/홍민영 기자

NH농협은행

‘농업유산보전’ 환경정화

NH농협은행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박태선 부행장과 HR·업무지원부문 및 신탁부문 직원 40여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탐방하고, 유산보전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무·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이다. 2013년부터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12곳이 지정돼 있다.

/안상미 기자